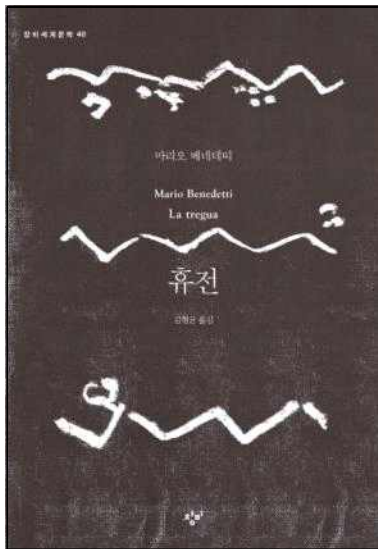


## 신간소개 | Books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 휴전

마리오 베네데티 (지은이) | 김현균 (옮긴이)

원제: La tregua

출판사: 창비

출판일: 2015-01-23

ISBN(13): 9788936464400

243쪽 | 210\*145mm

언론인이자 시인, 소설가로 활동한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좌파 지식인 마리오 베네데티의 『휴전』이 창비세계문학 40번으로 출간되었다. 1960년에 발표되어 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두 차례 영화화되면서 베네데티의 명성을 전 세계로 알린 그의 대표 장편인 『휴전』은 은퇴를 앞둔 마흔아홉의 홀아비 마르틴 산토메의 일기를 통해 염세주의와 숙명론에 길들여진 몬테비데오 도시 노동자의 초상을 그린 작품이다. 볼라노, 네루다의 작품은 물론 루벤 다리오, 호세 카를로스 카네이로 등 에스파냐어권 작가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김현균 서울대 교수의 번역으로 국내에는 처음 소개된다.

『휴전』은 일기라는 가장 내밀하고도 폐쇄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몬테비데오 도시 노동자의 특별할 것 없는 삶은 곧 개인의 운명을 넘어 사회 전체와 관련된 집단의 운명으로도 조응하며, 그의 삶은 곧 사무실화된 우루과이 사회의 정교한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유한한 삶,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 죽음, 고독, 사랑과 희망 등의 인간조건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산토메의 삶은 곧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 파울루 멘지스 다 호샤 - 무한, 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경관을 건축하다

엘리오 피논 (지은이) | 이병기 (옮긴이)

출판사: 아키텐스

출판일: 2015-01-10

ISBN(13): 9788998573034

188쪽 | 210\*210mm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중남미 건축가 시리즈의 첫 책, 『파울루 멘지스 다 호샤』는 그의 작품과 글을 소개하는 건축 작품집이다. 1928년 생으로 올해 87세인 멘지스 다 호샤는 2006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는 브라질의 대표 건축가이다. 이 작품집에 실린 비평의 글과 대부분의 사진은 엘리오 피논 교수의 기록이다. 그는 바르셀로나 건축대학 설계과의 정교수로 있으면서 건축가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모더니티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1950년대 중남미 건축을 연구해온 이론가이기도 하다. 건축가이자, 설계 교수, 이론가인 저자의 시각으로 포착된 이 작품집의 사진에는 기본적으로 사진가가 아닌, ‘설계를 수행하는 사람의 시각’이 담겨 있다.



## 자본주의와 노예제도

에릭 윌리엄스 (지은이) | 김성균 (옮긴이)

원제: Capitalism and Slavery

출판사: 우물이있는집

출판일: 2014-05-26

ISBN(13): 9788991958883

472쪽 | 223\*152mm (A5신)

1944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도발적이면서도 냉철한 논저 『자본주의와 노예제도』는 자본주의의 옹호자 및 지지자와 불가피한 적응자 및 순응자뿐 아니라 비판자 및 반대자마저 차마 외면하고 싶을 자본주의의 근본적 치부—자본주의와 노예제도의 태생적 내연관계—를 찢르고 폭로한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출간된 이후 갖가지 반론을 유발했지만, 그런 반론은 하나같이 지엽적이고 감상적이고 편협할 뿐 주목할 만하거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런 웅색한 반론을 거뜬히 잠재운 ‘역사의 보물’로 극찬받기도 했다.

트리니다드공화국 총리를 역임한 에릭 윌리엄스가 27세이던 1938년 브리튼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개정하고 보완하여 33세이던 1944년에 출판한 이 책은 서양에서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의 필독서로 꼽혀온 이 책은 현대 자본주의의 모태가 된 18~19세기 브리튼 자본주의와 노예제도에 관한 풍부한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노예제도가 자본주의의 태생적 필요악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또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 대한 기존의 감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통념들을 비판하고 논파한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초기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식민자본주의(또는 상업자본주의)가 태동기부터 노예제도와 긴밀한 내연관계를 맺고 노예제도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중기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산업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적·심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시사해준다.